

대리구주보

친교로 하나 되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소리주보QR코드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2024. 4. 21. (나해) 제2425호



해평성당

bernard - 그림 2024

5대리구 해평성당

그림_ 서원만 베르나르도

주소 | 경북 구미시 해평면 월호2길 16 문의 | 054-474-4142 홈페이지 | <https://cafe.daum.net/alone2010>

선산성당 관할이었던 해평공소가 성당으로 승격, 1969년 11월 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천주성삼을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관할공소였던 장천공소가 2010년에 성당으로 승격하여 분가되고 현재 낙산, 도개공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 1 독 서 사도 4,8-12

화 답 송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제 2 독 서 1요한 3,1-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 음 요한 10,11-18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신앙에 성실하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사람



교구 성소국장 | 박광훈 안드레아 신부

성소 주일인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성소, 즉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권고하는 날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이 오늘 하루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늘 해야 하고 실천하는 일을 다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둔다면, 적어도 오늘 하루는 우리 각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을 일관된 자세로 행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의 하나는 '삶에 자신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 성실하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사람이라야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은 물론 남도 하느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좋은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소 주일을 기억하는 의미는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성소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 다른 사람도 내가 듣는 하느님의 초대와 소리를 듣게 하도록 내 삶에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사용하는 일이야말로, 성소 주일의 의미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착한 목자가 되어, 내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하느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이끄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사제나 수도자로 살아가는 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사제나 수도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자녀들 가운데서 사제나 수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람에게에는 저마다 하느님에게서 받은 고유한 사명이 있는 법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느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그 뜻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삶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4월 21일 현재 우리 교구에는 65명의 신학생(재학생 45명, 휴학생 20명)이 있고, 신학생의 길을 준비하고 그 뜻을 키우고 있는 예비신학생이 150명 정도 있습니다. 오늘 성소 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소(聖召)'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신앙에 성실하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세상에 계속 드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궤**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평화를 건설하라는 부르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해마다 성소 주일은 소중한 선물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순례하는 백성의 일원인 우리가 당신 사랑의 계획에 참여하여 우리의 다양한 생활 신분 안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정 중에 있는 백성

현시점에서 우리는 2025년 희년으로 나아가는 공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로서 성년(聖年)을 향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다양한 선물 가운데에서 자신의 성소와 그 자리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꿈을 알리는 전령이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사랑으로 또 애덕과 협력과 형제애의 유대로 결합된 한 인류 가족을 꿈꾸십니다.

희망의 순례자, 평화의 건설자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순례에 나서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목적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언제나 그 목적지를 마음과 정신에 새겨 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에 다다르려면, **모든 걸음을 집중하여 내디뎌야** 합니다. 곧, 자신을 짓누르는 짐들을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들고 가벼운 상태로 여행하며 날마다 온갖 피로, 두려움, 불안, 망설임을 떨쳐 버리고자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다시 길을 나서는 것,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 피로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눈앞에 새로운 지평과 미지의 경관을 펼쳐 놓는 그 여정의 다양한 단계들을 따라가는

데에 필요한 열정과 힘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순례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자양분을 얻는 내적 여정에 힘입어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에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순례는 목적 없는 여행이나 정처 없는 방황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곧 평화와 정의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걸음을 내딛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며 이를 실현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기에, 우리는 희망의 순례자입니다.

투신할 수 있는 용기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납시다. 우리가 저마다 교회와 세상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성소를 찾고 희망의 순례자이며 평화의 건설자가 될 수 있도록, 무관심을 뒤로하고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놓곤 하는 감옥의 문을 열어젖힙시다!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고 있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투신합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투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집시다!”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렐루야


교구 문화홍보국 차장 | 이재근 레오 신부

학생 때 주일학교에서 알렐루야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슬픈 시기에는 알렐루야를 외치면 안 된다고 했던 선생님의 말씀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인지 그 당시 제가 느꼈던 사순 시기는 하루하루가 우울했습니다. 늘 외치던 알렐루야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더욱더 그 말이 그리웠고 하루빨리 쓸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랬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버티다가 만나게 된 주님 부활 대축일은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신부님의 선창과 함께 시작된 대영광송과 종소리는 제 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불린 알렐루야는 고요하면서도 제 마음을 충만케 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 없이 외쳤던 이 한마디가 왜 기쁨의 표현인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알렐루야’는 이스라엘 말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혹은 “너희는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기쁨에 넘쳐 지르게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성가와 기도문에 흔히 사용됩니다.

개신교에서는 “할렐루야”라고 발음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발음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어에서는 ‘알렐루야’와 ‘할렐루야’를 혼용해서 사용하였고 그 후 라틴어에서는 ‘알렐루야’로 발음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알렐루야’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전례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다 보니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망각한 채 무뎠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부활 시기를 지내는 동안 ‘알렐루야’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5년

계속되는 사목방문

11월 7일 일요일

신나무골에서 5시간 동안 말을 타고 잠시 칠곡(漆谷) 읍내에 멈춘 후 원당(元堂)에 이르렀다.

11월 9일 화요일

9시 30분에 원당에서 떠난 우리는 최근에 개종한 내실(內室)의 강 바오로란 양반 집에서 점심을 들었다. 그의 가족은 11대 선조 때부터 이 집에 살고 있었다. 5시 30분에 비들못(鳩池)에 도착했다.

11월 10일 수요일

오늘은 천황의 즉위 기념일 이어서 일본과 한국에서 오후 3시에 모든 사람들이 만세(萬歲)를 외쳐야 했다. 우리 촌사람들은 그런 일에 하등의 관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명령 때문에 모두들 깃발을 내걸었다.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다음 공소까지의 거리를 잘못 가르쳐 주어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소요해야 했고, 그 때문에 많은 일에 차질이 생겼다.

11월 11일 목요일

복사들이 짐을 싸는 동안에 비들못의 소녀들이 민요를 불러주었는데, 음조와 음색이 아주 듣기 좋았다. 우리는 10시 20분에 출발하여 군위(軍威)읍을 지났다. 도리원(桃李院) 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50리를 더 갔고 비안(比安)읍을 지난 후에, 저녁 6시에 안계(安溪)마을에 도착했다. 거기서 큰 마을로 가서 마 요한이라는 사람 집에 묵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편안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서둘러서 제대를 마련했다.

11월 12일 금요일

나는 혼자서 미사를 드렸고, 신부들은 영성체할 가족들의 고해를 들었다. 우리는 2시에 청운리(靑雲里)에 도착하여 3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했다.

11월 14일 일요일

어제처럼 마당에서 견진성사를 주었다. 방의 천장이 주교관을 쓰고 있기에는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온통 서리가 내려 있었고 하늘은 무척 맑았다. 우리는 서둘러서 강 건너편에 있는 도경리(道京里)로부터 10리 길을 갔다.

출처 : 가톨릭신문사 창간 60주년 기념자료집 『드망즈 주교 일기』(1987)

코이노니아베스트링 다들고



하느님과 이웃, 피조물 안에서 찬양을 통해 친교와 소통을 나누는 시간!

4.17.(수) 4.24.(수) 4.30.(화)

5.8.(수) 5.14.(화) 5.21.(화) 5.29.(수)

11:50~12:50 교구청 내 푸르실료 교육관 앞

※ 상기 일정은 우천시 예고 없이 취소되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구주보 음성서비스 소리주보 개편

교구 문화홍보국에서 발행하는 소리주보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주보 콘텐츠에 대해 신부님과 봉사자들이 함께 나누고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대구주보 1면(표지) 우측 상단 소리주보 QR코드 참조

'여기애인'상 독후감 공모

(如己愛人)

| 기간 | 3.11.(월)~5.10.(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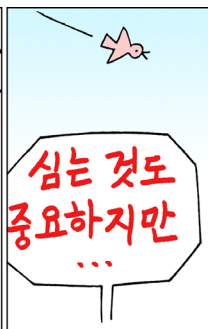
| 대상 | 주일학교 중 고등학생

| 요령 | 지정 도서 독후감 쓰기(44용지 2매 이상)

| 방법 | 한국여기회로 이메일 (hgnagai@naver.com) 접수



내가 심은 나무처럼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1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22일(월) 11:00 계산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4월 23일(화) 14:00 신암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4월 22일(월) 11:00 도량성당		4월 23일(화) 19:30 다사성당
공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27일(토) 11:00 남산성당		4월 24일(수) 10:00 죽도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4월 27일(토) 11:00 순례자성당		4월 24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수도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5.5(일) 11:00

장소: 서울 성북동 본원

대상: 한반도에 머물긴 아까운 그대

문의: (010)8715-2846

노틀담수녀회 젊은이 기도 모임

일시: 5.12(주일) 14:00~17:00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장소: 가톨릭 소화어린이집(상인동)

문의: (010)7634-2274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및 소그룹 피정: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매월 셋째주 화~수

(1박 2일) / 문의: (054)382-0091

2024년 성령쇄신 전국 대피정 실시

일시: 4.27(토) 9:30~17:4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

강사: Fr. 오웅진, 한연흠, 양창우

미사: 구요비 주교, 교구담당·협력사제단

대상: 모든 교우 / 문의: (02)777-3211

예수마음기도 하루 무료 피정(권민자 수녀)

일정: 5.11(토) / 6.8(토)

10:00~15:00 / 14:00 미사

매일 둘째주 토요일 무료 피정 예정

장소: 부산가톨릭센터, (051)462-1870

신청: (010) 4837-7509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

자연: 5.14~16 / 5.27~29 / 6.10~12

성지: 5.19~22 / 6.3~6 / 6.15~18

접수: (02)773-1463 /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피정접수 중)

기간: 5.2~4 / 5.6~8 / 5.17~19

5.22~24 / 5.26~29(추) / 6.16~18(성지)

문의: (02)773-1455 / (064)796-4182

일반 알림 | 기타

바오로딸 문화 영성 프로그램

일정: 4.26(금)부터 8주 14:00~16:00

장소: 대구 바오로딸(동성로6길 39)

강좌: 김규린 작가의 어반스케치

신청: (010)6681-5185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일시: 매월 마지막주(금) 14:00, 성요셉성당

(성바오로수도회 소속 새사제 박득태 루카

신부의 첫미사가 4.26에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 협력자 회원·개인 누구나 참여가능

문의: 협력자회, (010)8684-1360

평화 학교(총 4회)

1차: 5.18(토) 15:00~19(일) 13:00

2차: 6.22(토)~23(일)

3차: 7.20(토)~21(일)

장소: 왜관수도원 내 피정의집

문의: (010)6791-0071(문자)

주교님과 함께 하는 성모의 밤

일시: 5.18(토) 16:00

※ 가정성화를 위한 성모의 밤

5.1~31 매일 17:00(토, 일 미사는

주일 특전) 미사 후 식사 제공

문의: 성모솔숲마을, (010)3209-3955

온라인(Zoom) 33일 묵상회

기간: 4.29(월) 20:00~5.31(금) 봉헌

회비: 3만원(교재 포함)

접수: 서울마리아학교

(010)2724-4819

무료병원 성심복지의원 봉사자 모집

분야: 치과 의사, 치위생사, 약사

문의: 256-9494

홈페이지: <http://sungsim94.or.kr>

경일신경과·내과
 전문의 : 신경과 6인/내과 4인/영상의 1인
 • 치매 · 파킨슨병 · 뇌졸중 조기진단
 •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 (3T)MRI · CT · 공단검진(위/대장)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DR. SUM'S PRET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영남 서만수 (주)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눈성형 | 코성형 | 반월센트럴타워 8층
 필러, 보톡스 | 진료문의, 216-7345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지정 의·한협진 1등급 병원
재활치료 전인병원
 환자중심의 전문재활 프로그램
 재활맞춤 한의학 프로그램
 1688-7667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구 전인병원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역임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T. (053)752-9797

김정범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전문) 김정범(대전안드레아) 동산병원 정년퇴임
 우울증 | 불안장애(공황전문) | 불면증
 청라언덕역 9번 출구에서 동산병원 방향 도보 4분
 대구시 중구 달성로 26 | 2F ☎ 053-253-0600
 동산병원 주차장 이용 가능

파크골프
 국산채 - 30% / 홈마 - 수입산 / 개인지도
전기 온수 매트 소형 소금 열 좌욕기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 45 전차관 1층 239호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천담병원 3층
 청라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송덕망 스테파노 신부
1920년 4월 22일
- 신현옥 치릴로 신부
1988년 4월 22일
- 김경식 보니파시오 몬시뇰
2010년 4월 27일

교구 | 대구구 알림

하남아이 청년리더십 27기

기간: 5.10(금)~12(일), 꾸르실료 교육관
대상: 85년생~05년생
마감: 5.1(수) / 신청비: 12만원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토비아 성지순례

일시: 5.11(토) 7:30~18:00
장소: 청양다락골 성지(점심 제공)
대상: 60세 이상 신자(선착순 70명)
마감: 5.5(일) / 순례비: 5만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제32차 교구 올드레아

일시: 5.15(수)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주제: 일어나 비추어라(이사 60,1)
대상: 꾸르실리스타
문의: 254-4671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한티피정의집 사무직 직원 채용

내용: 교구 홈페이지 교구 알림 3.19
자 공고 참조 / 모집: 채용 완료시까지
문의: (054)975-5151

한티 순교성지 자료집 발간 기념
심포지엄 「한티 교우촌과 순교자」

일시: 4.27(토) 15: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남산동)
3층 대강당
문의: 영남교회사연구소, 660-5233

울릉도 천부성당 영성센터 순례 숙소

아름다운 울릉도 최고 순례지,
조용한 쉼, 묵상, 경관 좋은 곳
개관: 매년 4.1~10.31
홈페이지: 천부성당 영성센터 검색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24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5.7(화)~20(월) 17:00
입학전형: 6.3(월) 14:00(석사과정)
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
문화학 / 문의: (02)3147-8156, 866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녀,
비신자 포함 /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대구가톨릭음악원 전공반 모집

지휘·오르간, 시편 성가, 성악

문의: 대구가톨릭음악원
(010)8581-20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 프로그램

408차 ME주말: 4.26(금)~28(일)
409차 ME주말: 5.24(금)~26(일)
410차 ME주말: 7.26(금)~28(일)
장소: 한티피정의 집 /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 가능

바니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4.25(목)
14:00 기도, 15:00 미사
장소: 관덕정

한국여기회 「여기애인」 원고 모집

주제: 봉사, 자선, 이웃사랑의 체험수기
분량: A4용지 2매 이내, 11P
제출: min8641@hanmail.net
소정의 원고료 제공 / 연락처 필수

가톨릭요셉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장소: 가톨릭문화관(1호선 교대역)
3번 출구 요셉발건강)
문의: (010)3817-5255

2024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곽재혁신경과
DR. GWAHAK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대구가톨릭대학교
신남역(청리언덕역) 9번 출구 척اتب병원 4층

발아 정형외과
AL-A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발목 인대 손상, 평발, 깔창 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발발친구)
수성구 삼남대거리에서 롯데캐슬빌딩 500m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활치료장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중전라번더 맞은편)
☎ 053)942-8822

원룸,투룸 용 달이사
한역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구 313-2484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익(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 원장 정승우(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마리미술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기관
ADHD || 학교부적응 || 불안 || 우울 || 무기력
대인관계 || 인터넷 중독
소장 | 미술전문 미술치료사 / 미술치료학 박사 수료
박정하(마리아) 010-8305-2046
Maryart_arttherapy
달서구 도원동 상화로58길 86 2F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종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이종 하(스테파노) 신부
TEL 053)615-4871